

창세기(12)

창세기 2 장 15 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온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첫 사람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는 말씀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채소나 과일이나 물고기나 공중의 새와 짐승, 사람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으나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계는 순종하여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창공만큼은 좋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사탄의 세력들을 가두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에베소서 6 장에 보면 나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 나오고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최초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 장에 넘어가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첫 사람 아담과 이브는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에는 좋은 양식이 되는, 9 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고, 그 동산 나무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물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했습니다. living soul 이것을 또 ‘생령’이라 번역을 해서 살아있는 혼과 살아있는 영은 완전히 다른데 이것을 ‘생령’이라 해서 혼동하게 만들었습니다. living soul 입니다. soul 은 혼이고 spirit 은 영이고 body 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육신도 만들어주시고 혼도 만들어주시고 또 영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받아들이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 기억하시죠?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받아들이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믿고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따지고 연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신학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생각을 주셨는데 ‘너 모세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모세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얘기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야, 너와 내가 다를 것이 뭐 있냐?’ 미리암까지도 ‘너 내 동생인데 너 어릴 때 기저귀 가는 것까지 봤는데, 네가 뭘데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러다가 문둥병에 걸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귀한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잘난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을 택해서 그 무식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 넣어주시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그들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66 권을 요즘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까지도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66 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라 하시면 하면 되고, 하자 말라고 하신 것 하지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는지 모르면 성경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농부로 창조되었습니다. 농부 중에서도 과수원지기로 창조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사과와 당근을 주고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먹겠습니까? 사과를 먹습니다. 상추와 복숭아를 주며 선택하라 하면 복숭아 먹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조상의 첫 번째 직업이 과수원지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란 영어 단어가 husband 라는 단어도 있지만 사실은 농부라는 말에 husbandman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편의 원래 직업이 농부라는 겁니다. 킹제임스성경에 보면 농부를 farmer 라 하지 않고 husbandman 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라는 것은 영어로 freely 공짜로 세상말로 하면 공짜입니다. 공짜로 마음대로 먹으면, 온갖 과일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먹으면 육신에게 보약이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그 영이 영원토록 사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해요? 거기에 특별히 노동을 해야

한다고도 안 했고 하나님이 과일나무 남겨두고 아담에게 씨를 심어서 갈아서 기름 주고 네가 살충제 뿌리고 뭐 그렇게 해서 먹으라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열매가 맺혔고 사람은 그냥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세기 3 장 가보면 이브가 말이죠. 우리 한번 3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 장 2 절,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니.” 사탄은 꼭 부정으로 묻습니다. 부정문으로 물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시는데 사탄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의문을 줍니다. why, how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너 이렇게 걱정근심이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들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는데요. ‘마음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뺐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생하는 비극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을 때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 이것은 이브가 먼저 뱀의 간교한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값없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거저 준 것이다.’ 이 말을 빼버렸습니다. 우리인간의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물론 순종하지도 않고 이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 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생각 속에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 생각으로는 아무리 영리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지금 우리 사는데 필요한 것들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광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어떤 책을 봐도 영원한 목적 영원한 세계의 경륜에 대해서 쓴 것이 있습니까? 창조에 대해 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도 성경과 비교해서 낫다고 하는 책이 없습니다. 영원을 다룬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임의대로란 말을 빼서 완전히 비극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 속에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사람과 배회하는 것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왜 신학자들이 성경을 뜯어 고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생각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생각 속에 들어 온 적이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원인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꼴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사람이 옳기다 보면 카피하다 보면 성경을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성경도 보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전 믿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멋대로 살다가 갑니다.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 와서는 ‘전능하사~’ 이룹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전능하사~’ 속으로 믿지 않으면서 전능하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행하는 자가 됩니까?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거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 은혜시대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종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다 무엇을 붙였어요. 전부 선행을 붙였어요. 전부 선악과를 붙였습니다. 선행이 됩니까? 아~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선행이 있다는 것은 악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을 따른다.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즘에 똑같습니다. 요즘 종교가 됩니까? 카톨릭이 왜 이단이 됐습니까? 예수도 믿어야지만 마리아도 믿어야 하고 선행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연옥에 가서 그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말씀을 받은 아담과 이브의 입장이 육천년 동안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는 현장에까지도 연결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엄청나게 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죄를 씻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그랬습니다. 씻김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말씀으로도 깨끗함을 받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고 시원케 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마셔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기도하라 하시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주 우스운 예화가 있죠. 어떤 바보가 한 가지만 구하라 했더니 엉뚱한 것을 구해 낭패를 본다든 얘기. 제가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 오늘 아침에 한 가지만 구하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하실 것입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너희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으며 떡이나 빵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너희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못 깨닫습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만 구하면 그 안에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계획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했어요. 수가성 여인 남편을 다섯 번 갈아치운 여인은 말이죠. 그 여인이 산 세상을 보면 죄악이라고 하겠지만, 그 여인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을 주는 샘물이 된다고 할 때, ‘나에게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죠.’ 이러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구하지 않고 영똥한 것만 구합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하니까 문제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일부러 오셔서 ‘입으로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는 건데 그것보다 다른 것을 구하니 문제가 됩니다. 성령을 구할 때 진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가 봤나요? 못 보았어요. 어떻게 태초에 천지창조 하신 것을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